

國內外 香料産業과 展望

인간이 최초로 향을 생활에 이용하게 된 것은 지금부터 4,5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의 제단을 신성하게 여겨온 고대 사람들은 제단 앞에 나아갈 때 신체를 청결히 하고 향내가 풍기는 나뭇가지를 태우고 향나무 잎으로 즙을 내어 몸에 발랐다고 한다. 이와 같이 종교적인 것에서부터 처음 사용되었던 향료는, 현재 약학, 의학분야 뿐만 아니라 화장품 및 기타분야에 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향료산업의 근대 변천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면 1970년대까지 제품의 안정성, 제조기술, 품질관리 등의 향료 관련 기술중심으로, 1970 - 1980년까지는 천연 향료소재, 저자극 원료를 중심으로 한 안전성 관련 의 인간과 제품의 "조화"를 중심으로, 1980 - 1990년대에는 고기능, 생화학, 신물질, 신기술의 제품을 통한 인간의 "유용성"을 중심으로, 1990년대는 심리학적으로 인간에게 우아함을 창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의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기술 개발은 정보과학, 심리과학, 생리과학등의 soft-ware와 hard-ware가 종합된 기술의 시대일 것이다. 향료산업은 발달 초기에 식품의 보관과 기호성 향상 등을 위주로한 기호식품용 향료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생활수준이 점점 향상되면서 식품류를 위주로한 flavor의 성장이 포화단계에 이르러 상대적으로 fragrance에 대한 기술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Flavor는 후각과 미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것으로 단맛과 어울리는 sweet flavor와 짠맛과 어울리는 savory flavor로 분류된다. sweet flavor는 주로 음료, 아이스크림, 제과 등 기호성 식품에 사용되며, savory flavor는 야채, 고기 등 주식에 주로 사용된다. Fragrance는 후각만을 자극하는 것으로 fine fragrance와 일반 fragrance로 분류되는데 fine fragrance는 주로 향수 제조에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 fragrance는 비누 및 주방용 세제 등 household 분야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fine fragrance는 조향사의 창의력과 상상력 등 주관적인 미적 감각이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한 이미지 산업의 성격이 강하다. 원료로 사용되는 향료는 천연원료에서 시작하여 향기성분만을 추출, 분말화하여 사용되어왔으나 천연향료는 기후요인과 환경에 의해 원료수급이 불안정하므로 가격변동이 심한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천연원료와 동일 분자식을 갖거나 천연원료에는 없는 새로운 합성향료를 생산함으로써 공급안정성, 가격안정성, 경영안정성 등을 꾀할 수 있게 되어 불안정한 천연향료 대체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안정성 선호와 함께 천연향료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면서 천연향 사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천연향료의 안정성에 대한 기준 및 법규 적용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향료산업의 발달을 위해서는 숙련된 조향사와 배합 balance에 대한 know-how가 요구되는데, 배합 기술에 의한 balance의 차이는 향에 매우 예민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간 기술 교류가 용이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향료산업이 발달한 유럽은 약 300년, 일본은 약 100년 정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반면, 국내 향료 산업은 불과 20~30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 아직 이들 국가에 대한 기술 및 원료에 대한 수입의존률이 높은 상태로 국내 향료산업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초보 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국내 향료 산업의 발달 속도는 유럽이나 일본 등과 비교해 매우 급신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완제품의 수입비중이 높아 외국 향료업체들의 주요 수출 대상 지역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향료의 국산화 대체에 대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장현황

국내 향료 산업은 원료에 대한 수입의존률이 100%에 이르며, 향료 제조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향료 시장의 약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향료 시장은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어 다른 동남아 지역의 향료시장에 비해 규모가 크고 조합 완제품의 형태로 수입되는 향료의 비중이 높아 저조한 국산화율을 보이고 있다. 향료의 국산화율을 보면 flavor는 약 40~45%, fragrance는 약 10~15% 정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fragrance의 수입의존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료 국산화는 원료의 높은 수입의존률, 낮은 배합기술, 조향사 육성부족, life cycle단축 등이 주요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국내 향료 시장은 조합향료 완제품의 수입관세와 원료의 수입관세가 8%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조합향료의 수입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 국내 제조업체들의 국산화 대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료의 일반적인 사용비율을 보면 flavor의 경우 음료 0.1%, 껌 1~2% 정도이며, fragrance는 비누 1~1.25%, 화장품 0.3~0.4%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내 향료 시장은 flavor의 경우 전통음료 및 기능성 음료에 대한 출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전체적인 향료 수요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fragrance도 수요시장의 수입개방화에 의한 시장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비관적인 견해가 팽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요시장에서 국산화 대체에 대한 시도를 적극 협조하는 추세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내 취향에 맞는 고유의 향료를 중심으로 국산 향료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향료 공급업체와 수요업체의 자구책 마련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체들이 소폭 활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주로 fragrance중 수요 시장이 큰 household분야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행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 향료에 기능성을 부여한 향료 개발이 진행되어 고부가가치를 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향료 개발동향

최근 화장품 및 향미료의 소비가 급증됨에 따라 우리 기호에 맞는 전통향료개발의 필요성이 점고되어 국내에 자생하는 식물에서 원료를 추출한 향료와 토종향수 제품들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국산 향수가 틈새시장 개척을 노리고 제주, 노고단, 서라벌, 설악에 이

어 유자향수, 한방향수의 제품을 개발하였다. 국산 향수 1호인 '제주'는 제주를 상징하는 감귤꽃과 유채꽃에서 그 향을 추출하여 만든 제주도 지정 향수로 20-40대 동양여성을 고객층으로 삼고 있다. 향수 전문가들에게 고상하고 매력적인 향수로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 구례군 지정 '노고단' 향수는 지리산 노고단 정상 주변 30만평에 야생하는 원추리 꽃과 옥잠화를 주원료로 하여 은은하고 달콤한 향을 담은 향수이다. 동양란.백합.썩이 주원료인 '서라벌'은 3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의 여성들에게 어울리는 경주시 지정 향수다. 설악산 골짜기에 자생하는 정향나무.소나무.썩의 향기를 담은 '설악'은 속초시 지정 향수로 활동적인 직장여성들을 겨냥한 제품이다. 강원도 정선의 지정 향수 '정선 풍경(風景)'는 해발 1000m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산나물과 한약재 등 9종(생강나무, 눈썩백, 황기, 맛두릅, 곰취, 독활, 생열귀나무, 구절초, 더덕)의 자생식물에서 원료를 채취, 적응시험을 거쳐 순수 천연향을 간직한 향수를 만들었다. 자연의 은은하고 시원한 느낌을 그대로 담아 원시림의 느낌을 간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주)태평양에서 난 중의 난, 꽃 중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제주한란(寒蘭)의 향을 재현한 향수 '일리(ILLI)'를 새롭게 선보였다. 태평양 연구진은 제주한란의 신선하고 단아한 청향(清香)을 재현하기 위해 극히 희귀한 제주한란의 꽃을 찾아 그 꽃피는 시기와 향기를 내는 시간을 틈타 난향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를 SPME(Solid Phase Micro Extraction)방법을 사용하여 2년여(97~99년)에 걸친 작업을 통해 재현해내 '일리(ILLI)'향수로 개발했다. 제주한란(寒蘭)은 제주도의 해발 70~900m의 상록수림 밑에서 희귀하게 자라는 상록성 지생종(地生種)의 다년초(학명 *Cymbidium kanran*). 한란은 다른 원예식물처럼 실생 교배가 어려워 수만주 중의 하나가 도화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의 가치가 더욱 귀하게 취급되고 있다.

국내 향료시장은 IMF 사태 이후 상당한 시장의 감소가 있었고, 정확한 통계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 약간의 오차가 있으나, 업계에서는 국내 향료 시장을 대략 연간 약 1.2 억-1.5 억불 정도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략 1,500 억-1,800 억원 정도의 시장인데, 이 중에서 국내 향료회사가 공급하고 있는 양은 대략 30%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장은 아직 외국의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아 국산화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는 장기적으로 국내 소비취향에 적합한 고유의 향료개발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 제조업체의 시장점유율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국내 외국 향료업체들 대부분이 에이전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실수요 취향 파악이 용이하고 서비스 제공이 신속한 장점이 있는 반면, 향료공급 및 정보교류의 신속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이에 Givaudan-Roure, H&R, Takasago IFF 등은 국내지사를 설립해 빠른 정보교류 및 수요자들의 취향에 적합한 향료공급의 신속성 등을 꾀하고 있으나 영업관행의 차이로 인한 융통성 있는 서비스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향료시장은 대부분이 식품, 의약품 등의 먹는 제품에 사용되는 조합식품향료(Compound Flavor), 화장품·세정류 등의 제품에 사용되는 조합향장향료 연향료(Essential Oils), 화학반응에 의해 제조한 원료향료물질인 합성향료(Aroma Chemicals) 등으로 크게 나뉘어지고 있는데 조합식품향료와 조합향장향료가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합식품향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5%정도이고, 조합향장향료가 35%, 나머지가 합성향료와 천연향료가 차지하고 있다. 외국 주요 향료업체로는 일본의 다가사코와 하세가와, 독일의 H&R, 미국의 IFF, 스위스의 Firme-nich, Givaudan 등이 있는데, 이들은 기존 향료시장을 기반으로 축적된 향료기술과 원료 생산기술로 내수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향료업체는 보락, 한일향료, 한불화농, 서울향료, 한미향료 등이 생산, 향료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의 식품향료 사용분포는 음료용으로 약 40%, 빙과 27%, 캔디 17%, 껌류 1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국내 향료 업체는 이중 약 40%이상을 외국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료 주소비시장의 하나인 청량음료 시장은 저탄산음료, 과즙음료, 기능성음료, 전통음료 등 다양성과 단기성의 시장형성이 이루어져 있다.

국내 향료시장은 다른 동남아시아의 향료시장 규모에 비해 크고 조합 완제품의 수입비중이 높아 국산화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한다. 향료 국산화는 원료의 수입 의존율이 높고 배합기술 수준의 낮으며, 조향사의 육성부족, life cycle 단축 등이 주요 맹점으로 작용되고 있다.

국내 향료공업은 발달 초기에 식품보관과 기호성 향상 등을 위주로 한 기호식품용 향료가 주류를 차지했으나 점차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품류를 위주로 한 향료의 성장이 포화단계에 이르러 상대적으로 fragrance 에 대한 기술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flavor 비중이 fragrance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fragrance 분야는 생활수준향상과 함께 성장할 것으로 분석된다.

세제향 향료시장은 소비자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기호가 다양화됨에 따라 세제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액체 세제향은 한불화농에서는 애경에 주방용 액체 세제향을 포함, 세제향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세제에 있어 향 선택은 표백성분, 계면활성제 등 세제원료냄새의 Base Cover 성능의 우수함과 세제의 이미지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소비자 어필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세제용 향료 수요현황 (단위 : 톤, %)

구분	1996		1997		1998	
	수량	증감률	수량	증감률	수량	증감률

섬유유연제	310	370	19.4	255	▽31.1
화장 비누	520	585	12.5	498	▽14.9
분말 세제	650	700	7.7	565	▽19.3
표백제	10	20	100.0	18	▽10.0
주방용세제	120	135	12.5	112	▽17.0
합계	1,610	1,810	12.4	1,448	▽20.0

국내 향료 수입현황 단위 : 톤, %)

구분		1996	1997		1998	
		수량	수량	증감률	수량	증감률
조합향료	식품향료	1,304	1,428	9.5	1,071	▽25.0
	향장향료	2,026	2,332	15.1	1,692	▽27.4
	소계	3,331	3,760	12.9	2,763	▽26.5
향원료	합성향료	1,446	1,503	3.9	1,317	▽12.4
	천연향료	588	577	▽1.9	542	▽6.1
	소계	2,034	2,080	2.3	1,859	▽10.6
합계		5,365	5,840	8.9	4,622	▽20.9

세계 향료시장 현황 및 전망

세계적으로 아로마테라피 및 아로마콜로지가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응용되고 있다. 향료가 환경문제, 안전성, Multiple Chemical Sensitivity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향후, 향료공업의 향방에 주의를 가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향료시장은 약 95 억~100 억달러를 보인 가운데, 4.5%~8.5%의 저성장이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세계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서유럽, 미국, 일본이 세계 향료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5%가량은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및 동유럽에 분산돼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동남아시아의 시장성장이 현저하며, 특히 중국 및 인디아의 향료 수요증가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 유럽 향료업체들은 생산거점 및 본부를 아시아로 이동시켰고 싱가포르에 Givaudan Roure, Bush Boake, Allen, Firmenich, Haarmann and Reimer, Dragoco 등이

진출해 있다. 아시아지역중 주요 생산거점지역인 인도네시아에는 현재 IFF, Quest 등이 진출해 있다. 세계 향료시장은 IFF, Givaudan-Roure, Quest, H&R, Firmenish, Takasago, BBA, Dragoco 등 8 개 업체가 65%~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과 일본의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높다. 향료 상품별로는 합성향료 14.8%, 천연향료 17.5%, 화장품 향료가 29.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향료시장의 경우, 식품향료는 증가했으나 화장품향료는 정체를 보여 전체 향료시장은 보합을 유지했다. 또한 화장품류에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는 무한성과 미향성 제품이 증가하고 있어 점차 향료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계 향료 시장 중 아시아지역의 수요확대가 현저한 가운데, 아프리카와 중남미, 동유럽지역도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지역의 확대와 소비자의 기호차이로 새로운 시장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세계 향료업계는 환경 및 안정성 문제 등의 여러 가지 규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향료업계 뿐만 아니라 타업종과 연계를 통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 점을 고려한 제품개발이나 아로마테라피 및 아로마콜로지 등의 한계를 관망한 후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일본의 향료 생산 (단위 : 톤, 100 만엔)

종별		1996 년	1997 년	1998 년	
천연향료	수량	1.12	63	52	
	금액	54.70	1.4	1.2	
합성향료	수량	13,390	40,955	40,622	
	금액	35,737	16,000	15,049	
조합 향료	식품향료	수량	34,486	100,965	99,138
		금액	94,987	36,533	35,075
	화장품향료	수량	8,462	25,059	21,716
		금액	25,183	8,116	6,927
합계	수량	56,439	167,042	161,528	
	금액	155,962	60,650.4	57,052.2	

일본의 향료 수출입 현황 (단위 : 톤, 100 만엔)

종별	1996 년		1997 년		1998 년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천연향료		수량	20,290	187	14,246	900	12,961	790
		금액	13,895	595	23,183	224	10,972	238
합성향료		수량	40,293	91,667	40,598	33,247	31,365	33,005
		금액	32,832	29,033	43,331	82,877	31,294	90,019
조합 향료	식품향료	수량	3,426	4,724	24,784	14,254	20,449	10,564
		금액	21,182	11,661	3,998	4,966	3,515	3,868
	화장품향료	수량	2,165	2,772	5,330	4,658	5,093	3,952
		금액	5,519	5,450	2,045	2,153	1,887	2,009
합계		수량	66,174	99,350	84,958	53,059	69,868	48,311
		금액	73,428	46,739	72,557	90,220	47,668	96,134

자료 : 씨스캠닷컴(주)

앞으로의 전망

우리 나라의 산야에는 고등식물이 약 300여종 이상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향을 내는 식물과 약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은 약 900여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의 몇 개의 예들을 보도록 하자. 1910년 한라산에서 미국으로 반출된 구상나무는 키작은 왜성나무 등 22종으로 품종이 개량돼 유럽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로서 가장 비싸게 팔리고 있다. 유럽에서 수입하는 백합은 우리 고유종인 하늘말나리, 털중나리 등 나리꽃을 교배해 얻은 것이다. 상록 정원수의 상징인 회양목도 우리 특산종이지만, 1989년 미국인 월슨이 충북 단양에서 채집한 것이 ‘윈터 뷰티’라는 새 품종으로 변신해 다시 되팔려 들어오고 있다.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된 뒤 “생물자원의 주권”을 주장하는 개발도상국과 “자유로운 지식 이용”을 내세우는 선진국의 싸움은 이미 예견돼 왔다. 94년 이 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18세기부터 외국으로 유출된 토종 동식물의 종류와 규모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현재 진행되는 자원유출에 대한 관리도 허술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연구자들은 우리만의 특화된 향료를 원한다면, 자생식물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성과를 모어나감과 동시에 약용자원으로 개발가능성이 있는 방향성 식물들을 선별하여 연차적으로 그 향기성분의 조성구조와 구조구명을 시도하며, 최적채취시기, 추출법검토, 관능시험 및 생리활성실험 등을 통한 새로운 향료 및 의약품으로서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가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참고자료>

자생 식물들의 특징

곰취

- 자생지 : 전국의 깊은 산속 고지대 습지에 자생. 일부농가에서 재배
- 이용특성
 - 식용 : 이른봄 어린 잎을 데치거나 날것으로 쌈싸 먹거나 목나물로 이용
 - 약용 : 전초 및 뿌리를 진정(鎮靜), 진통(鎮痛), 보익(補益)에 씀
 - 기타 : 방향성(芳香性) 식물

구절초

- 자생지 : 전국의 산야지초원, 최근 일부농가 재배, 자생화 가로화단 식재
- 이용특성
 - 원예 및 조경용 : 관상가치가 높은 식물이다.
 - 약용 : 전초를 정혈(精血), 식욕촉진, 강장(強壯), 부인병(婦人病), 보온(補溫), 중풍(中風), 건위(健胃), 보익(補益), 신경통(神經痛)에 씀
 - 기타 : 방향성식물

더덕

- 자생지 : 전국의 깊은 산 숲속그늘 자생, 농가에서 다량재배
- 이용특성
 - 식용 : 뿌리, 어린순을 나물로 이용
 - 약용 : 뿌리를 천식(喘息), 보익(補益), 경풍(驚風), 한열(寒熱), 보폐(補肺), 편도선염(扁桃腺炎), 인후염(咽喉炎)에 약재로 씀
 - 기타 : 방향성식물

눈측백

- 자생지 : 한국특산식물로 중부이북의 높은 산에 자생
- 이용특성
 - 원예 및 조경용 : 울타리용으로 심는다.
 - 약용 : 잎과 씨를 동상(凍傷), 토혈(吐血), 자궁지혈(子宮止血), 지사(止瀉), 강장(強壯), 이혈(痢血), 뇌질, 진정(鎮靜), 화상(火傷), 광란(亂), 경풍(驚風), 간질(癇疾)에 약으로 씀
 - 기타 : 방향성식물

생열귀나무

- 자생지 : 우리나라 중북부 깊은 산의 해발 200~1,200m의 암석지와 산의 계곡에 자생
- 이용특성
 - 원예 및 조경용 : 꽃과 열매가 관상가치가 있다.

- 약용 : 꽃을 지혈에, 열매는 소화불량, 월경과다에, 뿌리는 진해거담, 설사멈춤, 지혈 등에 이용
- 기타 : 밀원식물, 방향성식물, 꽃은 향기가 강하므로 방향유를 추출해 화장수나 향수 원료로 쓸 수 있다

황기

- 자생지 : 울릉도 및 중부지방 강원도 이북의 고산지대에 자생약초농가에서 다량 재배(주산지 : 정선)
- 이용특성
 - 약용 : 뿌리를 적리(赤痢), 폐병(肺病), 늑막염(肋膜炎), 보익(補益), 강장(強壯), 종창(腫瘡), 해열(解熱), 치질(痔疾), 완하(緩和), 지한(止汗)에 약재로 씀

독활

- 자생지 : 전국의 산의 음지에 자생
- 이용특성
 - 식용 : 어린 순을 고급나물로 이용
 - 약용 : 근피를 해열, 강장, 거담, 위암, 당뇨병 등에 쓴다.
 - 기타 : 향기성식물

땃드릅나무

- 자생지 : 한국특산식물로 전국의 깊은 산 해발 500~2,000m지역 수림하 능선지대에 자생
- 이용특성
 - 약용 : 가지, 줄기, 근피를 거담, 진통 약재로 씀
 - 기타 : 방향성식물

생강나무

- 자생지 : 전국의 해발 100~1,600m 산기슭 양지, 숲속 및 전석지 자생
- 이용특성
 - 약용 : 열매, 잎, 나뭇가지 등을 해열, 강심제, 건위, 학질에 사용
 - 기타 : 방향성식물, 열매에서 기름 짜고 향료재료로도 쓰임.

정향나무

- 자생지 : 전국의 해발 200~1,900m 되는 깊은 산속에서 드문드문 자란다.
- 이용특성
 - 원예 및 조경용 : 꽃과 향이 좋아 관상수로 사용

° 약용 : 뿌리를 한방에서는 토하거나 설사할 때, 객란, 위와 배아픔에 치료제로 사용.

° 기타 : 방향성 식물, 화축 및 수피에서 추출한 정유는 향미생물 작용을 가짐.

원추리

- 자생지 : 전국의 양지 계곡이나 산에 군락을 지어서 자생
- 이용특성
 - ° 원예 및 조경용 : 꽃색이 아름다워 관상하는 정원초화로 이용
 - ° 식용 : 어린순을 나물이나 국으로 먹는다.
 - ° 약용 : 뿌리는 자양강장제이며, 폐결핵, 빈혈, 황달, 변비에 사용
 - ° 기타 : 방향제 식물

옥잠화

- 자생지 : 전국의 깊은 산 숲속 그늘
- 이용특성
 - ° 약용 : 꽃잎, 뿌리를 소염, 해독, 발모·종기치료에 이용
 - ° 기타 : 방향제 식물

쥐오줌풀

- 자생지 : 전국의 해발 1,300m 이하의 산지의 습한 곳
- 이용특성
 - ° 식용 : 어린 잎과 순은 나물로 먹는다.
 - ° 약용 : 뿌리를 건조한 길초근(吉草根) 은 신경과민, 정신불안증의 진정제로 이용
 - ° 기타 : 뿌리를 담배 맥주, 양주 및 칵테일 음료의 향료로 사용

향료산업과 관련된 주요 사이트

- a. 생물다양성연구소 식물자원연구실
<http://www.kbdi.or.kr>
- b. 한국 식물향 연구소
<http://drhyang.co.kr>
- c. 한국향료 연구회
<http://foodi.co.kr/sostech/Gocomm.asp?GroupID=flavor>
- d. 한불화농(주) 부설연구소
<http://www.fka.co.kr>
- e. 보락 기술연구소

http://bolak.co.kr/index_k.html

f. 코리아나 연구소

<http://merbe.coreana.co.kr/shoptemplate/CorCoreana/people/people2.asp>